

예천 삼수정 회화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정 재 완

1. 글머리에

내년 2025년은 동래정씨 12세조(十二世祖)인 정귀령(鄭龜齡, 호는 三樹이다. 이하에서 三樹公이라 한다)이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별곡(법정동명은 청곡리)으로 입향한지 600년 되는 해다. 신라 6부 촌장 중 하나인 지백호(智伯虎)¹⁾를 시조로 하는 동래정씨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동래를 주된 세거지(世居地)로 하였고, 여기에서 개경의 고려조정으로 출사(出仕)하였다. 고려 말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빈번하게 침략하고 공민왕의 피살(1374년) 등 조정정치도 매우 어지럽게 되자 1376년(우왕 3년) 당시 예문관 응교(應敎)였던 동래정씨 10세조 정승원(鄭承源)이 벼슬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당시로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었던²⁾ 경상도 지방의 안동부 풍산현 구담으로 이거(里居 :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삶)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삼수공은 승원의 손자다. 삼수공의 생몰(生歿) 시기는 정확하게 기록된 바 없다. 그러나 공의 맏아들인 정옹(鄭雍)의 출생 시기가 1391년인 것으로 보아 1370년 전후에 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수공은 일찍부터 학문에 힘써 조선이 개국한 뒤 32년이 지난 1424년(세종 6년) 9월, 어질고 덕성(德性)스러우며 학문이 탁월하다는 천거에 따라 세종임금이 공을 충청도 결성(오늘날 홍성) 현감으로 제수하였다. 공은 임지에서 10개월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였으나 선정을 베풀어 조선 초 대표적으로 어진 목민관으로 기억된다.³⁾

삼수공은 1425년(세종 7년) 6월에 현감직을 사임한 뒤 거주지였던 풍산현 구담을 떠나 낙동강을 따라 하류로 15km 떨어진 당시 용궁현 포내(浦內)로 불려진 별곡(別谷 ; 별실이라고도 부른다)⁴⁾, 현재의 삼수정 아래쪽으로 옮겨 정

1) 신라의 6촌 중 취산 진지촌(珍支村)의 촌장으로 신라의 개국 공신이다. 서기 32년(신라 유리왕 9) 지백호가 정씨(鄭氏)로 사성(賜姓)되어 경주를 본관으로 하다가 뒤에 동래로 분적(分籍)되었다고 한다.

2) 1361년 홍건적이 침입하여 개경이 함락될 지경이 되자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난하였다.

3) “삼수공이 부임한 지 채 일년이 못 되어 고을이 크게 다스려짐에 조정에서 어진 관리라 극구 칭찬하였으며,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며 행실이 몹시 삼가고 조심스러워 백성들이 다 공을 의지하여 살았으니 그 고을 백성들이 송덕하는 비를 세워 공을 기렸다. 이에 문종 때 형조참판으로 증직되었으며, 중종 때 그 증손자(정광필)가 영의정으로 현달하자 이조판서에 가증(加贈)되었다.” 浣潭誌(浣潭宗中所, 1992) pp.321~322, 328. 참조. 삼수공을 결성공(結成公) 또는 판서공(判書公)이라 부르기도 한다.

4) 현재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에 속한다. 이곳은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용궁현 소속이었으나 1895년 대한제국의 직제개편으로 용궁군 남하면에 소속되었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 용궁군 남상면의

착하였다.⁵⁾ 이때 삼수공은 집 근처의 굽이치는 낙동강이 잘 보이는 언덕위에 손수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고 정자를 세워 삼수정(三樹亭)이라 하고, 호도 삼수(三樹)로 지었다. 600년의 긴 세월이 흐르면서 삼수정은 여러 차례 무너져 중건하기를 거듭했으나 그 이름은 그대로 남았고, 세 그루였던 회화나무는 한 그루만 남았다(풍양면 청곡리 821번지 소재). 현재 삼수정은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관리되고 있고, 삼수정 회화나무는 예천군의 보호수로 관리된다.

수령(樹齡)이 오래된 당산목, 풍치목, 정자목 등의 나무를 노거수(老巨樹)라 한다. 노거수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수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거수를 보호수나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이런 나무들이 갖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나 남은 삼수정 회화나무도 수령 600년을 맞아 그 존재 의의와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알맞은 보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시도다.

2. 삼수정 회화나무와 삼수정의 정신문화적 의미

1) 삼수공의 회화나무 식재와 삼수정 건립의 의의는 무엇인가?

회화나무는 회화목, 회나무, 해나무, 괴화나무, 괴목, 괴수 등으로도 부르는, 잎이 지는 큰키나무다. 예천지방에서는 통상 해나무라 한다. 이 나무를 중국에서는 학자수(學者樹), 출세수(出世樹), 행복수(幸福樹)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이 나무를 심으면 집안에 학자가 나고 큰 인물이 나오며 집안에 행복을 부른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며, 선비나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말하자면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명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길상목(吉祥木)으로 본 것이다. 나무의 수명은 길고, 잎이 무성하며, 줄기가 크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재판관이 송사를 들을 때 반드시 회화나무 가지를 들고 재판

용호, 하풍, 사막 등 10개 동과 용궁군 남하면의 우망, 별곡, 효동 등으로 현재의 풍양면이 구성되었다. 면소재지는 일제초기에는 우망리에 소재하였으나, 1931년 11월 현재의 풍양면 낙상리로 이전하였다. 1988년 5월 예천군 조례에 의해 ‘동’ 또는 ‘리’의 명칭은 모두 ‘리’로 통일됨. 청곡리는 법정동명으로 행정동인 청감리와 별곡리, 우곡리 및 구산리를 합하여 구성하였으며 청감과 별곡에서 한 자씩을 따서 청곡리라 한다.

5) 구담에 비해 포내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문경새재가 가깝고, 당시 경성감영이 있던 상주와는 직선거리로 약 20km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가깝다.

에 임했는데 회화나무에 진실을 가려 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회화나무는 우리 선조들도 최고의 길상목으로 받아들여, 이 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가문이 번창하고 큰 학자나 큰 인물이 나며 또 이 나무에는 잡귀신이 감히 범접을 못하고 좋은 기운이 모여든다고 보았다.⁶⁾



봄을 맞아 새싹이 돋는 삼수정 회화나무(2024.4.)

우리나라에서 회화나무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어디서 비롯되어 형성된 것일까? 그 해답은 주례(周禮)⁷⁾에도 일부 언급이 있지만, 무엇보다 고문진보(古文

6) 출처 : 산림청(<https://www.forest.go.kr>/이야기가 있는 나무/회화나무)

7) ‘주례’는 중국 주(周)나라 시대의周公旦(周公)의 저작이며, 삼례(三禮: 周禮·儀禮·禮記) 가운데 으뜸으로 여겼다. ‘주례’의 주된 내용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관직의 제도와 직무, 인원 수 등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이미 이 책이 전해져 조정 조직에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도 제도와 관직에 따른 직무를 세우는 데 ‘주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외조(外朝)는 왕이 삼공(三公)과 고경대부(孤卿大夫) 및 여러 관료와 귀족들을 만나는 장소로, 이 중 삼공의 자리에는 회화나무(槐)를 심어 좌석의 표지(標識)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다.

眞寶)라는 책의 회화나무 관련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고문진보는 이를 처음 편찬한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중국의 남송(南宋) 말이나 원나라 초기인 1200년대 말 또는 1300년대 초에 중국에서 황견(黃堅)이란 사람에 의해 간행되었다는 것이 정설(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300년대 중반 경에 전래되어 최초의 인쇄 및 유포가 1367년에서 1370년 사이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⁸⁾ 삼수공의 조부로 1376년 개경을 떠나 풍산현 구담으로 이거한 정승원(鄭承源)과 그 아들이자 삼수공의 부친인 정해(鄭諧)는 모두 고려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던, 주자학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신진사대부였으므로⁹⁾ 이 시기에 간행된 고문진보를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 삼수공은 학문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책을 접하고 숙독하게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고문진보는 책 이름과 같이 중국의 역대 고문(古文) 가운데 진실로 보배가 될, 말하자면 중국 고전이라 할 사서(四書)오경(五經)¹⁰⁾에 기초한 성리학 사상과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되고 시나 문장으로 문학과 완결성이 높은 글들을 정선(精選)하여 모아 놓은 책이다. 고문진보는 고시(古詩)를 모아 놓은 전집(前集)과 고문(古文)을 모아 놓은 후집(後集)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후집의 고문을 보면 다방면에서 문장의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 놓고 있다.

삼수공이 고문진보를 접한 것은 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 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였을 것이나, 이후 이 책은 조선시대 내내 선비들이 탐독하고, 또 글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음이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¹¹⁾ 실제로 조선시대 선비

8) 신용호 번역, 고문진보 후집(전통문화연구회, 2019), p.17.

9) 정승원은 고려 조정의 예문관 응교, 정해는 판사복주사(判司僕寺事) 벼슬에 있었다. 고려에서는 1308년(충렬왕 34) 사림원(詞林院)과 사관(史館)을 병합,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설치하면서 정5품의 응교 2명을 두었으며, 1362년(공민왕 11) 춘추관에서 예문관을 분리하면서 예문관에 응교를 두어 제찬(制撰)·사명(祠命)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조선에서도 국초에는 고려와 같이 예문춘추관에 응교를 두었다가, 1401년(태종 1) 예문·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폐지, 1420년(세종 2) 세종이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종4품의 응교 1명을 두었다(두산백과사전 참조).

10) 사서(四書)는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을, 오경(五經)은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의 삼경(三經)과 춘추(春秋), 예기(禮記)를 말한다.

11) 이는 퇴계 이황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고문진보 후집은 정기를 함유하고 있는 문장이나 모름지기 이를 취하여 5, 6백번은 읽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그 글을 읽은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 나는 장년에 다만 수백 번만 읽었을 뿐이었는데도 붓을 잡고 종이에 글을 쓰려 하면 가끔은 마치 생각이 저절로 일어난 듯이 흉중에 품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다”(이황, 雜記第五 (퇴계선생언행통록) 김태안, “정심(正心)의 시학과 자연시”, 안동문화 제14집, 1993, p.456에서 재인용. 또한 선조실록(제9권 선조 8년 6월 24일)을 보면 선조와 이이(李珥)간에 오간 다음과 같은 대화가 실려 있다. “상(上)이 이이에게 이르기를, “사서(四書) 중에서 어떤 글을 가장 좋아하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특별히 하나만을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가에 《근사록(近師錄)》·《심경(心經)》 등의 글을 읽고 있으나 질병과 공무(公務) 때문에 전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서 때 문장을 익힌 적이 있는가? 그대의 문사(文

들이 사서오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으로 알려진다.¹²⁾ 사서오경은 과거시험 과목이기도 하므로¹³⁾ 선비들이 학문의 중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학문의 심화를 위해 가장 많이 읽히었고 그 결과 선비들의 가치체계 형성과 사고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고문진보였던 것이다.

고문진보 후집에 실린 글 중에서 삼수공의 회화나무 식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이 소식(蘇軾; 1037~1101)¹⁴⁾의 삼괴당명(三槐堂銘)이 아닌가 한다. 소식은 아버지 소순, 동생 소철과 함께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글은 자신의 친구인 의민공(懿敏公) 왕소(王素)의 부친이자 송나라 태조시대 높은 덕망이 있었으나 정승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진국공(晉國公) 왕호(王祐)를 기리는 삼괴당(三槐堂)에 헌사(獻辭)한, 왕씨들의 복록을 축원한 명문(銘文)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⁵⁾

“...과거 병부시랑이었던 진국 왕공은 후한과 후주에서 업적을 드러낸 이후에 우리 송

詞)를 보건대 매우 좋으니, 배운 적이 있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신은 소시에서부터 문사를 배운 적은 없습니다. 소시에는 선학(禪學)을 자못 좋아하여 여러 경(經)을 두루 보았으나 착실(着實)한 곳이 없음을 깨닫고 유학(儒學)으로 돌아와서 우리 유학의 글에서 그 착실한 이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장을 위하여 읽은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 문장을 짓는데 대략 문리(文理)가 이루어진 것도 역시 별도로 공부를 한 일은 없고, 다만 일찍이 《고문진보(古文眞寶)》와 《시경(詩經)》·《서경(書經)》의 대문(大文)을 읽었을 뿐입니다.” 한편, 1798년 박제가(1750~1805)가 쓴 북학의에서도 과거시험의 폐단을 논하며 너무 많은 응시자로 인해 제대로 된 답안 채점이 불가능함을 두고 “한유같은 문장가가 시험을 주관한다 해도 소동파의 글을 번개처럼 던져버릴 것”이라 꼬집었는데, 여기서도 글을 읽는 이들이 한유나 소동파가 누구인지 익히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유(768~824)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중국 당나라 시대 유명한 정치가이자 문인이다. 고문진보 전집의 243개 시 가운데는 그의 시가 14개 실려 있고, 후집의 130개 글(文) 가운데는 그의 글이 30개 실려 있다. 소동파(1037~1101) 역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북송의 유명한 정치가다. 고문진보 전집에는 그의 시가 18개 실려 있고, 후집에는 16개의 글이 실려 있다. 따라서 고문진보를 읽은 사람이라면 한유와 소동파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박제가는 이 당연한 현실을 전제로 글을 쓴 것이다.

12) 성백효, 역주 고문진보 전집(고전국역편찬위원회, 2024.), p.15.

13) 조선시대 과거시험 과목은 사서오경과 차지통감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개국하는 즉위 교서에서 관리의 채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정록소(成均正錄所)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렴사(按廉使)가 그 학교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본관(本貫)·삼대(三代)와 경서(經書)에 통하는 바를 잘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장이소(成均館長貳所)에 올려, 경에서 통하는 바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事理)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입격(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를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책문(策問)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할 것이며, 삼장(三場)을 통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吏曹)로 보내면, 이 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게 할 것이다...”(조선왕조 태조실록 제1권, 태조 1년 7월 17일) 조선이 개국하던 시기 삼수공은 신진사대부의 아들인 20대 청년 선비였으므로 당연히 이 즉위교서를 읽었을 것이고, 따라서 학문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삼수공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으나 공의 가르침을 받았을 맏아들인 웅(雍)은 1417년(태종 18년)에, 셋째 아들인 사(賜) 또한 1420년(세종 2년)에 각각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14) 북송(北宋)의 시인이자, 학자, 정치가. 지금의 쓰촨성(四川省) 메이산(眉山) 출신으로 자는 자첨(子瞻), 호는 동파(東坡). 소식이란 이름보단 성씨에 호를 붙여서 부르는 방식인 소동파로 알려져 있다.

15) 신용호 번역, 고문진보 후집(전통문화연구회, 2019), pp.357~360.

나라 태조와 태종을 차례로 섬기면서 학문과 무공, 충성과 효행에 뛰어나서 천하 사람들이 그를 재상으로 삼기를 바랐지만 공은 직언으로 간하다가 끝내 그 시대에는 용납되지 못하였다. 이에 손수 세 그루의 왜나무를 정원에 심으면서 '내 자손 가운데 반드시 삼공(三公)에 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얼마 뒤 그 아들 위국 문정공이 경덕 상무 연간에 재상이 되어 진종 황제를 보필하게 되니 조정이 청명하고 천하가 무사한 때에 그 복록과 영예로운 명성을 누린 것이 18년이였다.

....아아, 아름다워라! 위국공의 업(業)이 왜나무와 함께 싹틔도다. 흙을 쌓고 심는 공(功)은 반드시 대(代)가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법. 진종이 재상이 되자 천하가 고르게 평안하게 되었는데, 돌아와 그 집 정원을 보니 왜나무 그늘이 뜰에 가득 하도다. 우리는 소인들이라 아침에도 저녁 일을 미치지 못하여, 기회를 살피며 이익이나 맞추려 하니 그 덕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는가? 요행이나 바라 심지도 않고 수확을 하려 하니, 군자가 없다면 어찌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으리오. 왕성의 동쪽은 진공의 집이 있는 곳, 그곳에 있는 울창한 세 그루 왜나무여, 덕의 상징이니, 아! 아름답도다."

이 글을 보면 비록 높은 덕망을 갖추었으되 재상 벼슬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던 송나라의 왕호(王祐)가 후손의 성취와 영달을 기리는 마음으로 집 뜰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었다는 것과, 세월이 지나 실제 그 후손이 재상이 되었고 나라를 잘 다스림에 따라 복록과 영예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회화나무 세 그루가 덕행과 후손에 대한 축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삼수공은 1424년 결성현감 직을 사임하고 떠나며 결성 동헌 뜰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었고¹⁶⁾, 같은 해 삼수정을 지으면서도 역시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었다. 삼수공이 삼수정 앞에 회화나무를 식재할 때 물론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을 것이나 분명 이 고사(古事)도 참고하여 후손들이 힘써 덕을 쌓고 노력함으로써 가문이 번창하고 복록과 영예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¹⁷⁾ 이러한 해석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삼수공의 15대손이자 현종 때 영의정이었던 정원용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6) 현재 홍성군 결성면에는 이 중 한 그루가 현재까지 남아 있고, 현지 주민들은 1750년(영조시대) 경부터 이를 신목(神木)으로 여겨 매년 단오 때 신목제(神木祭)를 지내고 있다.

17) "회화나무는 중국에서 자라는 나무로 이른 바 길상목(吉祥木), 학자수(學者樹), 정승수, 효자나무, 괴목(槐木), 괴화나무, 왜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선비가 살던 집이나 향교, 궁궐 등에서 심는 나무로 일반 사람은 심을 수 없는 나무다. 결성군 형방청에 심겨진 회화나무는 조선시대 최고의 선정관이었던 결성 41대 정구령(鄭龜齡) 현감이 1425년(세종 7년)에 식수한 나무다. 정구령 현감은 퇴임 후에 경상북도 예천 용궁현 향리로 내려가 8각 정자를 짓고, 앞뜰에 결성 현에서와 같이 회화나무 3그루를 심고, 호도 삼수(三樹), 정자 이름도 삼수정(三樹亭)이라 했다. 나무를 심는 정신은 정직, 청렴, 근면, 공경, 절약, 질박, 정직을 심는 실천의 정신으로 그 후손들 가운데 영의정 3명, 좌우정승 14명, 문과급제 198명을 배출하여 후손 발복 및 명문종가를 이룬 효시가 아닐 수 없다." (2018.6.18. 대전 동아방송 결성 신목제 관련 보도내용) <http://www.dbstv.co.kr> 참조.

한편, 고문진보 후집에 있는, 삼수공의 정자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이 진사도(陳師道 ; 1053~1102)¹⁸⁾의 사정기(思亭記)가 아닌가 한다. 이 글은 중국 서주의 부호였던 견씨(甄氏) 성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무덤 주변에 나무를 심고 그 곁에 재실(齋室)을 지은 다음 진사도에게 재실 이름을 지어 줄 것을 청하자 진사도가 사정(思亭)이라 지어주며 그 의미를 써 준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⁹⁾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어 생각이 따르게 된다. 방패와 창 같은 무기를 보면 전투할 마음이 생기고, 칼과 톱 같은 형구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며, 종묘와 사직을 보면 공경할 마음이 생기고, 저택을 보면 편안히 지낼 마음이 생긴다.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은 외물이 이르게 되면 그에 맞추어 감정이 일어나서이니, 이는 본시 당연한 이치이다. 이제 높은 곳에 올라서 무덤 주변에 있는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보다가, 언덕을 내려와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폐허가 된 무덤을 지나면서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여우와 토끼가 지나간 자국이 이리저리 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무덤을 생각(思)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재실 이름을 사정(思亭)이라 짓기를 청하노라. 아버지라면 사람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분이므로 군자들이 조심해 모시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대수(代數)가 내려가면 상복을 입는 촌수가 끝나고, 상복을 입는 촌수가 끝나면 서로 가까운 정도 다하게 되며, 가까운 정이 다하면 서로 잊게 된다. 내 아버지에서 시작하여 서로 잊고 지내는 사이에 이르게 되는 것은 촌수가 멀어졌기 때문이니, 이 사정(思亭)을 세우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릇 그대 건군의 자손이 이 사정(思亭)에 오른다면 조상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로써 그 생각의 범위를 넓힌다면 그 조상에 대한 효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글을 보면 같은 조상을 두었을지라도 대수(代數)가 내려가면 서로 가까운 정(情)도 사라지고 서로 잊게 되는데, 사정(思亭)이라는 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해 여기를 방문한 후손들은 인해 같은 조상이라는 동족 의식이 생겨 서로 잊지 않게 되고 또 조상에 대한 효심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정자는 일반적으로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을 말한다. 삼수정을 지은 1425년에 삼수공은 이미 나이가 적어도 50대 중후반에 이르렀는데,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6세였던 것에 비추어보면²⁰⁾ 삼수공이 자신이 놀거나 쉬기 위해 정자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후손들이 단지 그 정자에서 놀거나

18) 진사도는 북송의 문인으로 황정견, 진여의와 함께 강서시파(江西詩派)의 삼종(三宗)으로 칭해진다.

19) 신용호 번역, 고문진보 후집(전통문화연구회, 2019), pp.421~423.

20) 더구나 삼수공의 맏아들인 옹(雍)은 삼수공이 별곡으로 이거하기 전 해인 1424년에 조정(홍문관)에서 수찬(修撰) 벼슬로 재직 중 타계하였다. 향년 35세였다. 삼수공은 아들 다섯과 딸 다섯을 두었다.

쉬라고 지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삼수정의 경치가 좋은 만큼 놀거나 쉬는데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진사도의 사정기(思亭記) 보면 이러한 정자가 있으면 후손들이 여기를 방문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가까이 지내고, 또한 조상에 대한 관심과 효심도 커지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삼수공이 정자를 지은 깊은 뜻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진사도의 글은 재실과 관련한 것이지만 당시의 삼수공은 조부가 개경에서 구담으로 이거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의 일가(一家)라고 해야 소규모 가족 상태였을 것이므로 재실 또는 사당(祠堂)²¹⁾을 지을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손들에게는 삼수정과 같은 정자가 진사도 글에 등장하는 재실 또는 사당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삼수공은 삼수정을 짓고 그 뜰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으면서 왜 그리했는지 그 취지를 담은 글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약 170년 뒤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왜군이 이 지역에도 침입해 약탈과 방화로 초토화시켰는데²²⁾, 당시 종가(宗家)에 보관되던 1만여권에 달하는 문헌과 자료들이 소실되어 남은 게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삼수공의 삼수정 건립과 회화나무 식재와 그 의미는 삼수공의 자손들이 남긴 각종 기록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

2. 삼수정 회화나무와 삼수정이 후손에게 미친 정신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삼수공이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고 삼수정을 세운 것이 그 후손들이 학문과 덕(德)을 높게 쌓아 영예와 복록을 누리며 융성하고, 세월이 흘러 대수(代數)가 내려가 먼 친족간이 되더라도 효를 실천하며 우애로서 서로 가까이 지내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라 할 때, 과연 그러한 기대가 이후 실제로 현실화되었는지를 일부 삼수공 후손들의 행적을 통해 살펴본다.

21) 재실(齋室)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을 말하고, 사당(사우<祠宇>)라고도 한다)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을 말한다.

22) 임진왜란 당시에 자신이 겪은 일을 삼수공의 7대 손(孫) 석문공 정영방(鄭榮邦)은 석문집(石門集)에 임진조변사적(壬辰遭變事蹟)이란 글로 자세히 남겼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5월1일(음력)부터 왜적 십여명 혹은 삼사십명씩이 때를 지어 들어와 마을이나 산꼭대기를 멋대로 누비고 물려다니면서 살상과 노략질을 일삼아 부녀자, 우마(牛馬), 재화(財貨)와 포(布)들을 날마다 뺏어갔다. 그 뒤로 왜적이 우리 종가(宗家)를 진으로 삼아 무려 수백명이 모여 있었다..." 당시 종가에는 5간(五間)이나 되는 서고(書庫)에 만여권의 책들이 가득 쌓여있었는데, 왜병의 방화로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浣潭誌(浣潭宗中所, 1992), p.19 및 pp.670~677 참조. 浣潭誌는 동래정씨종약소가 주도하여 삼수공 및 그 후손들의 역대 사적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먼저 삼수정이 있는 별곡과 이웃한 우망에서 하나의 집성촌(이하 이 집성촌을 우망이라 한다)²³⁾을 이루면서 살아온 후손들의 주요 행적을 보기로 한다. 예천군이 발간한 예천군지(醴泉郡誌)²⁴⁾에는 예천군 출신 인물로 조선조(일제 식민시대 포함)에서 벼슬을 하였거나, 학문과 덕망이 높았거나, 뛰어난 효행, 또는 나라가 어려울 때 뛰어난 공적을 거둔 인물 등을 향현(鄉賢)으로 수록하고 있다. 즉, 향현이란 이 지역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란 의미다.

여기에 수록된 동래정씨가 130여명으로, 대부분이 우망 출신들이다. 130여명을 살펴보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한 사람이 28명, 문음(음서<蔭敍> 혹은 음사<蔭仕>라고도 한다)²⁵⁾ 또는 특채 형식으로 벼슬한 사람이 30명으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총 58명, 수직(受職)²⁶⁾으로 관직을 받은 사람이 18명,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학문과 덕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던 선비가 38명, 지극한 효행으로 알려진 이가 14명, 난세에 공을 세운 지사(志士)가 4명이다.

조선시대 동래정씨의 현달(顯達)을 얘기할 때 흔히 상신(相臣 : 영의정 혹은 좌의정과 우의정) 17명과 문과급제 198명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들 중 다수가 삼수공의 셋째 아들인 직제학공(直提學公) 정사(鄭賜)의 자손들이다.²⁷⁾ 이는 임진왜란 이후 영남 남인계열 선비들의 중앙정계 진출이 부진했던 상황과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 어쨌거나 직제학공 자손들은 대부분이 삼수공의 손자인 동래군 정난종(鄭蘭宗 ; 1433~1489)이 벼슬하면서부터 한양과 그 인근에 거주하게 되었고, 대개 여기에서 성장하고 13명의 상신(相臣)이 배출될 정도로 입신(立身)했지만²⁸⁾, 타계한 경우 유택(幽宅)도 예천이 아니라 한양 인근 곳곳에 모셔졌다. 따라서 이들은 예천군 출신 인물로 보지 않고 예천군지의 향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23) 별곡과 바로 옆 동리인 우망(憂忘)은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동래정씨 집성촌의 하나다. 두 개 동리는 수백미터 떨어져 있으나 주민 대부분이 동래정씨 친인척들로 사실상 한 개의 공동체라 볼 수 있는데, 우망리 쪽 거주민이 많기 때문에 흔히 이 두 개 마을을 합친 집성촌을 우망으로 부른다.

24) 1988.1.10. 발간된 예천군지를 참고하였다.

25) 공신이나 전·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일을 말한다.

26) 수직은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그 직에 합당한 예우만 받는 벼슬을 말한다.

27) 삼수공의 직계 후손으로 상신(相臣)이 된 사람은 다음 13명이다. 증손 광필(光弼, 1462~1538, 영의정), 5대손 유길(鄭惟吉, 1515~1588, 우의정), 9대손 지연(芝衍, 1525~1583, 우의정), 9대손 창연(昌衍, 1553~1637, 좌의정), 11대손 태화(太和, 1602~1673, 영의정), 11대손 치화(1609~1677, 좌의정), 11대손 지화(知和, 1613~1688, 좌의정), 12대손 재송(載嵩, 1632~1692, 우의정), 14대손 석오(錫五, 1692~1749, 좌의정), 15대손 홍순(弘淳, 1720~1784, 우의정), 16대손 존겸(存謙, 1722~1794, 영의정), 17대손 원용(元容, 1783~1873, 영의정), 19대손 범조(範朝, 1833~1897, 좌의정)

28) 동래군과 그의 손자로 영의정에 오른 문익공 정광필 등 그 후손 일부의 묘소는 오늘날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완담사적(浣潭事蹟)에 따르면 정광필의 경우 삼수정 인근에 있던 삼수공의 거처에서 출생하였다고 전해지며, 예천군지의 향현에도 포함되어 있다. 浣潭誌(浣潭宗中所, 1992), p.277 참조.

우망이란 단일 집성촌에서 130여명에 이르는 훌륭한 인물들이 다수 배출되었다는 것은 삼수공 이후 조선시대 내내 이 집성촌에서 어떤 정신적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해 주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동래정씨뿐 아니라 남인계열 영남선비들 다수가 학문에만 전념하고 벼슬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천군지의 향현을 기초로 보면 학문과 덕망이 뛰어났다 고 거론된 선비나 효행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가 52명으로, 실제 벼슬한 58명에 못지않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쟁이 나거나 난(亂)이 발생한 시기 충의(忠義)로서 공을 세운 수많은 분들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지사들의 경우²⁹⁾ 집성촌 공동체에 존재한 뿌리 깊은 정신적 토대 즉, 덕행의 중시라는 토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우망 집성촌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살게 된 삼수공 후손들도 뛰어난 덕행으로 이름난 경우가 많았는데, 고위 관료가 된 이들 가운데 정광필이나 정태화와 같이 특별히 높은 덕행으로 칭송받은 이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이들 가운데 우망과 관련된 행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일부로 삼수정과 삼수정 회화나무의 정신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임당공(林塘公) 정유길(鄭惟吉 ; 1515~1588)³⁰⁾과 관련된 행적이다. 삼수정이 지어지고 회화나무가 식재된 후 143년이 지난 1568년, 삼수공의 5대손으로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정유길이 이곳 우망을 찾았다. 기록에 따르면³¹⁾ 정유길은 선조들의 묘에 소분(掃墳 ;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돌보고 제사를 지내는 일)하고, 현지의 종인(宗人 ; 촌수가 먼 일가)들과 상의하여 삼수공 집터에 사당을 세우고³²⁾ 삼수공과 그의 장자인 웅(雍), 삼남인 사(賜) 3부자를 모셔 제사지내게 하였다.

29) 삼수공의 18대손인 독립지사 정훈모(鄭煥謨 1888~1939) 선생은 1914년 만주로 건너가 광복운동에 투신하여 서로군정서의 최고책임자인 이상룡장군의 참모로 활약하였다. 1939년 동지들과 러시아에서 북만주 지역으로 돌아오다 적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에 온 몸에 총상을 입고 적에게 체포되어 일본헌병대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 생명이 위독해 보석된 후 곧 순국하였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삼수공의 19대손인 독립지사 정진화(鄭鎭華 1873~1945) 선생은 1913년 국내에서 대한광복단을 조직해 활동하였고, 이후 만주에서 군관학교를 설치해 광복군을 양성하며 독립지사들의 운동자금 조달 등을 위해 활동하였다. 1918년 왜경에 잡혀 공주감옥에 투옥되었으며, 이후도 다양한 독립운동에 관여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30) 임당공 정유길의 족보는 삼수공 ⇒ 진주목사 사(賜) ⇒ 동래군 이조판서 난종(蘭宗) ⇒ 영의정 광필(光弼) ⇒ 강화부사 복겸(福謙) ⇒ 임당공 유길로 이어진다. 정유길은 17세 때인 1531년(중종 26) 사마시에 합격하고, 1538년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곧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그 뒤 공조좌랑·이조좌랑·중추부도사·세자시강원문학 등을 역임하고, 1568년(선조 1년) 경상도·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한 다음 1572년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명나라 사신 접반사가 되어 능란한 시문과 탁월한 슬기를 발휘해 명나라 사신과 지기기간이 되었다. 그 뒤 우찬성·판의금부사·판돈녕부사를 거쳐 1581년 우의정이 되었다.

31) 浣潭誌(浣潭宗中所, 1992), pp.278~290.

32) 이 사당은 건축된지 25년 뒤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 이 지역에 침입한 왜병에 의해 모두 불타고 말았다. 이후 15년이 지난 1606년 완담(浣潭 ; 현재의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에 재사(齋舍)로 중건되어 완담향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당을 낙성하며 행해진 제사 때 행해진 축사 ‘세일제 원위 결성공’(歲一祭 元位 結城公)³³⁾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³⁴⁾

德冠承家 慶流後嗣 精經是宜 顧我誠意

(덕으로 으뜸삼아 전통을 이었으니 아름다움이 후손에게 뻗치었나이다. 정결히 제사를 모시는 것도 이 까닭이오니 저희의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삼수공은 회화나무 세 그루란 상징물을 통해 후손들에게 덕행을 강조하였는데 이 축사를 보면 150여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 뜻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을 보면 이진형이란 사람이 선조임금에게 고문진보를 바치고 관직을 제수하였다하여 정언(正言)이 비판하는 내용³⁵⁾이 있을 정도로 1568년 정유길(정유정)이 삼수정을 방문할 당시에는 고문진보가 선비들이 널리 읽는 필독서가 되어 있었으므로 정유길 또한 삼수공이 삼수정을 짓고 그 뜰에 회화나무를 심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삼수공 이후 이미 여러 대(代)가 지나 정유길과 현지 종인들은 촌수도 많이 멀었음에도 삼수공이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덕행의 중시와 조상에 대한 효, 그리고 종인간 우애는 현실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정유길이 사당 건축을 주도한 것도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수석공(脩石公) 정기선(鄭基善 ; 1784~1839)³⁶⁾과 관련된 행적이다. 삼수정이 지어지고 회화나무가 식재된 후 400여년, 정유길이 우망을 방문한 후 260여년이 경과한 1829년의 일이다.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삼수공의 16대손 정기선이 역시 이곳 우망을 방문하고 종인들과 상의해 훼손되어 낡은 삼수정을 중수(重修)하기로 하였다. 이 때 정기선의 요청에 따라 당시 이조판서이자 삼수공의 15대손인 문충공(文忠公) 정원용(1783~1873)³⁷⁾이 남긴 ‘삼수정중수

33) 결성공(潔城公)은 삼수공이 결성현감을 지냈음에 따른 호칭이다.

34) 浣潭誌(浣潭宗中所, 1992), p.278.

35) 선조실록 135권, 선조 34년 3월 19일.

36) 수석공 정기선은 1812년(순조 12)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으며 1815년(순조 15) 다시 한림소시(翰林召試)에 선발된 뒤 함경도암행어사로 발탁되어 문란한 지방행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활약하였다. 이조참의 등을 지내고 부제학을 거쳐, 1827년(순조 27)에는 경상도관찰사가 되었고, 그 뒤 우부빈객(右副賓客)을 거쳐 1833년(순조 33)에는 예조판서, 그 이듬해는 대사헌이 되었다.

37) 문충공 정원용은 1802년(순조 2)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가주서를 거쳐 예문관검열·홍문관부응교·이조참의·대사간 등을 지냈다. 1821년 서북 지방에 괴질이 크게 번져 10여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민심이 흉흉하게 되자 관서위유사(關西慰諭使)가 되어 이를 진정시켰으며 강원도관찰사 등을 지내다가 1831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의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1837년(헌종 3) 예조판서에 오르 고, 이어 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중추부판사가 되었다가 1848년 영의정이 되었다. 정원용은 권문세가 출신으로 20여 년 간 여러 차례 의정(議政)을 지냈지만, 늘 검소하게 생활하며 청렴결백했다고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기’(三樹亭重修記 ; 이 중수기는 현재 삼수정 전면에 현판으로 걸려있다)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⁸⁾

논어에서 “어진 사람은 반드시 후손에게 복을 끼친다”고 했었는데 과연 그러한가. 대저 사람이 어진 덕을 자신이 쌓으면 그 자손이 반드시 성하게 오래 이어져서 사회에 드러난다. 그 가계를 이은 이들은 비유컨대 수목과 같아서 그 뿌리가 굳으며 굵은 줄기와 무성한 가지가 구름 속까지 뻗어 비바람을 가리워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시들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세상에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 빛을 내는 것이 천길 아름드리 나무가 얇은 언덕에서 자라나지 아니함과 같으니 이 이치는 심히 당연하여 움직일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선조들께서 조선조 초부터 대대로 훈공과 덕행이 있어서 복록과 영화스러운 이름을 누림이 역사에 장하게 기록되기도 하고 송조에 배향되기도 하여 뚜렷한 교목(喬木 : 높이 가 8미터를 넘는 나무를 말함) 세신(世臣 : 대대로 녹봉을 받는 신하)의 큰 집안이 되었음은 오로지 우리 결성공 할아버님께서 덕을 많이 쌓아서 자손에게 끼쳐주신 때문이다. 할아버님께서 용궁현 별곡에 집을 짓고 뜰에 손수 나무를 심으신 것이 인하여 정자 이름이 되었으니 그윽히 생각건대 할아버님의 뜻하심은 반드시 왕진공(王晉公)이 느티나무를 심고 앞날을 기약한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손을 분발시킨 일로 그 쌓으신 덕이 부합되기는 꼭 같은 지라.

내가 년전에 완담서원을 참배하고 종인들과 더불어 이 정자에서 화수회를 만들 때 선대를 사모하고 근본을 돈독히 하고픈 생각이 구름 피어오르듯 하고 또 이 정자가 오래되어 낡은 것을 수리하지 못한 일이 마음속에 안타깝더니 이제 관찰사 기선(基善)이 이 지역을 맡아 다스리게 되었으니 마침 해는 을축년이고 이때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림에 마음을 다해 구휼하니 백성은 활기를 찾고 보리가 또 풍년이 들었다. 드디어 개연히 말하기를 “이제 내가 가히 사사로운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선조에게 아름다운 덕이 있어도 모르는 것은 총명하지 못한 탓이요 알고도 닦지 못하는 것은 어질지 못한 탓이라고 했으니 감히 세 그루 나무를 심으신 선조의 마음을 받들지 아니할 수 있으랴”하고 정자의 옛 모습을 말미암아 더 꾸미고 약간의 위토를 사고 정직(亭直)이를 마련하여 그것을 수호하게 하니 여러 종인들이 그 일을 듣고 서로 일러 말하되 “지방 장관이여 어질도다! 정사를 베푸는 데 매우 능하고 또 그 집안을 잘 다스리도다”하고, 또 말하기를 “이 분이 그 근본을 돈독히 하고 그 자손을 격려시킴이 진실로 두터울진저”하더라.

내가 말하노니 선조의 아름다움에는 행함이 있고, 덕이 있는지라 행하고도 닦지 아니함은 마땅히 나의 부끄러움이요, 덕이 있는데도 밝히지 못함은 마땅히 나의 두려움이

38) 浣潭誌(浣潭宗中所, 1992), pp.335~337.

로다. 어찌 수목과 정자에만 있다 하랴. 그리고 선영을 공경하고 당실도 즐거이 세우는데 하물며 선조의 덕행이리요. 선조에게 아름다운 덕행이 있음을 자손이 서로 닦고 밝히는 것이 곧 수목의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하고자 그 뿌리를 복돋우고 감싸서 줄기를 튼튼하게 함과 그 무엇이 다르랴. 오종(吾宗)의 자손들과 이 정자에 오르는 이들은 정성을 다해 서로 서로 수호하기를 힘쓸지어다. 15대손 이조판서 원용이 찬(撰)하다.

이 글을 분석해 보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글쓴이(문충공 정원용)는 삼수공이 정자를 짓고 그 뜰에 세 그루 회화나무를 심은 이유와 의미를 고문진보에 있는 소식의 글 ‘삼괴당명’에 비추어 파악하면서 ‘덕행’과 연관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글쓴이는 ‘삼괴당명’의 왕진공 사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출처를 따로 밝히지 않는데, 이는 조선후기에도 고문진보가 널리 읽히고 있음에 따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 출처를 알고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둘째, 글을 쓴 시점(1829년)에서 볼 때 동래정씨 집안이 조선조 초부터 대대로 훈공과 덕행이 있어 복록과 영화스러운 이름을 누리며 역사에 장하게 기록되는 큰 집안이 된 것은 삼수공이 덕을 많이 쌓아 자손에게 끼쳐준 때문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³⁹⁾ 비록 삼수공이 ‘삼괴당명’의 왕진공 사례와 같이 앞날을 공언하고 기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손을 분발시킨 일로 덕이 부합된 것은 마찬가지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글쓴이 정원용은 삼수공의 15대손으로, 앞서 정유길의 경우보다 훨씬 여러 대가 지나 우망 집성촌에 살고 있는 종인들과는 더욱 촌수가 멀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이곳을 방문해 서원을 참배하고, 종인들과 화수회를 만드는 등 우의를 다지는 일을 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유길이나 정기선은 경상도관찰사로서 이곳을 찾았으나 정원용은 경상도 관찰사가 아닌 한양의 고위 관료로 재직하면서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⁴⁰⁾ 삼수공의 후손들은 여러 대가 지나 촌수가 먼 일가가 되었을지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종인들

39) 비슷한 뜻이 이때 삼수정 중수(重修)를 주도한 정기선의 다음과 같은 상량문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깨끗한 한 언덕에 세 그루 나무를 심어서 가꾸니 용틀임한 가지가 겹겹이 쌓이어서 울창한 마디마디가 서로 뒤얹히고 범 같은 줄기에 나누어진 가지는 무성하게도 솔밭처럼 마주 서니 이 때문에 삼수정으로 이름이 되었도다. 그 기상을 수목에서 살피니 오직 덕행에 부합되고 그 재주와 국량을 이 동량에 덮으니 이름을 돌아보아 생각하도다...” 浣潭誌(浣潭宗中所, 1992), pp.339~342 참조.

40) 정원용은 과거에 급제한 1802년부터 1873년 죽는 날까지 경산일록(經山日錄)이라는 일기를 남겼다. 햇수로 약 71년 동안이며, 아울러 일기를 쓰기 이전 어린시절 일도 회상을 통해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원문은 한문으로 쓰여 있으며 모두 17권에 달한다.

이 이곳을 찾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⁴¹⁾, 이들은 삼수정에 올라 세월을 더 해가는 회화나무를 보며 삼수공의 뜻을 기렸을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글쓴이는 삼수정과 삼수정 회화나무가 덕을 쌓고 이를 행해 나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삼수공의 후손뿐 아니라 정자에 오르는 모든 이들이 그 뜻을 이어 받아 정성을 다해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삼수정과 그 앞의 회화나무가 삼수공 후손이라는 일족(一族)의 정신문화적 상징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전달 측면에서 이곳 지역민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정신문화적 유산임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삼수공 후손들의 몇 가지 행적기록을 기초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수정 회화나무는 삼수공 이후 60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후손들에게 덕행의 표상으로 이를 권면하는 역할을, 삼수정은 조상에 대한 공경과 효, 그리고 종인간의 우애를 이끌어 내는 의미있는 구심점으로 기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삼수정을 짓고 회화나무를 심은 삼수공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었다 할 것이다.

3. 삼수정 회화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1) 삼수정 회화나무에 대한 보호와 관리현황

삼수정 회화나무와 같은 노거수(老巨樹)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소중한 산림자원의 하나로 시·도의 보호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요건 충족이 인정되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간주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현재 삼수정 앞 회화나무는 경상북도 예천군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된다.⁴²⁾ 보호수란 노목(老木), 거목, 희귀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의 ‘시·도지

41) 완담지에는 조상들의 묘표(墓表) 등의 기록을 근거로 삼수공의 7대손 지연(芝衍 1525~1583 ; 선조 때 직제학, 대사간, 경상도관찰사, 대사헌, 이조판서, 우의정 역임), 9대손 태화(太和 1602~1673 ; 인조 때 대사간, 대사헌과 6조의 판서를 모두 거쳐 우의정에 올랐고, 효종 때 좌의정과 영의정을 역임) 등도 이 지역을 방문해 활동한 자료도 실려 있다. 浣潭誌(浣潭宗中所, 1992), pp.268~270 참조.

42) 이 나무는 일제 강점기에도 도(道)지정목 제164호로 지정, 보호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s://www.ycg.kr/open.content/pungyang/tour/legend/> 보호수 지정과 관리 업무는 10여년 전부터 도 업무에서 시군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다.

삼수정 회화나무 앞엔 예천군 보호수란 표지석이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보 호 수

품 격 : 군나무 고유번호 : 11-27-19

지정일자 : 1972년 8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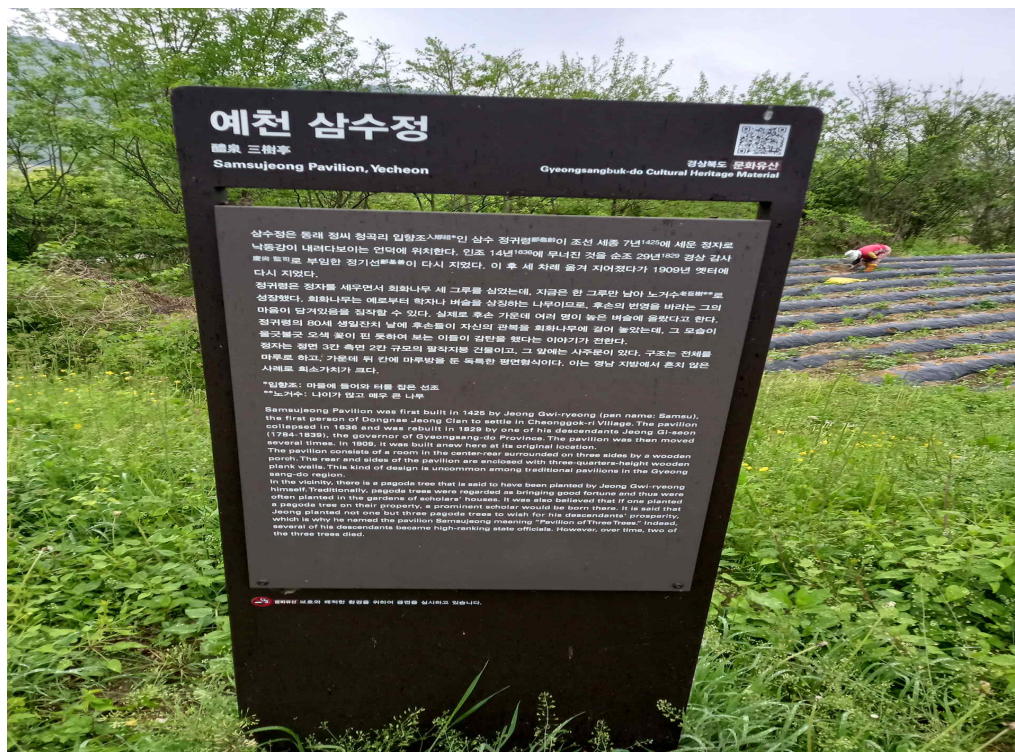
수종 및 수령 : 회화나무 300년

소재지 : 풍양면 청곡리 821

1972년에 예천군이 삼수정 회화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때 왜 수령(樹齡)을 300년으로 추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7세기 중반 이 나무가 한 때 시들었다가 새움이 터서 다시 자란 적이 있다는 전설에 따라 그 시기를 기준으로 수령을 추정한 것으로 보여진다⁴³⁾. 그러나 밑둥치가 남은 상태에서 결가지

43) 예천군 풍양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삼수정 회화나무 관련 내용을 보면 “이 회화나무는 14세기 말 삼수공(三樹公) 정귀령(鄭龜齡)이 용궁현 구담리에서 이 곳 포내(현 풍양면 별실)로 이사하면서 정자를 지어 삼수정(三樹亭)이라 이름하면서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심었다. 그 후 200년을 무성하게

가 성장하였을 경우 당연히 밑둥치를 기준으로 수령을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수목전문가에 따르면⁴⁴⁾ 통상 수령판단은 줄기나 가지가 있을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판단하나, 밑둥치로서 수령을 판단하려면 탄소연대측정방법을 사용해야 정확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없이 삼수정 회화나무의 수령이 300년이라 추정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최근 예천군청이 경상북도 지정 문화유산인 삼수정 앞에 세운 안내판에는 이 회화나무가 삼수공 입향시 심은, 즉 수령이 600년 된 나무인 것으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삼수정(경상북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486호) 안내판

예천군은 2024년 8월 현재 126개체의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회화나무는 4개체이다.⁴⁵⁾ 그 외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느티나무(71), 음나무(1), 은행나무(2), 팽나무(4), 소나무(16), 전나무(1), 버드나무(3),

자라더니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이후 차츰 잎이 시들고 밑둥치조차 없어지고 다만 한 그루가 결가지를 소생(蘇生)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수목전문가에 의하면 노거수는 속이 텅 비기 때문에 수령측정이 매우 어려워 일반적으로 민간에 전해지는 얘기로 수령을 추정한다고 한다.

44) 한국임업진흥원 수목전문가인 박소연 책임연구원의 견해다. 탄소연대측정방법에 의한 수령판단 방법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고 해외에 의뢰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수령판단과 관련해 종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를 했었으나 현재는 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45) 4 개체 중 2개체가 풍양면에 소재하며 그 중 하나가 삼수정 앞 회화나무이고, 나머지 하나는 삼강주막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삼강리 소재 회화나무이다. 삼강리 소재 회화나무는 정확한 식재시기와 식재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다.

왕버들(3), 돌배나무(1), 감나무(1) 등이다.⁴⁶⁾

노거수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군청 담당부서(산림녹지과) 주관으로 해당 나무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병충해 방제, 영양제투여, 주변 제초작업, 가지치기와 외과수술, 지지대 설치 등의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한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예천군의 126개체 보호수 관리에는 2024년 기준 연간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모든 보호수에 대해 외과수술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통 7~8년에 한번씩 돌아가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필수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아주 긴급한 것이 아니면 7~8년이 지나야 조치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노거수의 문화재 지정

노거수 중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이 법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이 2024년 5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자연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분리하여 신설한 것이다.) 제2조에 의해 자연유산으로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또는 ‘시·도자연유산’, 혹은 ‘자연유산자료’(이들을 망라하여 해당 법률에서는 ‘천연기념물 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 자연유산법에는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46) 예천군청 통계연보(제62회) 참조.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

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동물·식물을 시·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시·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유산”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한편 천연기념물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에 대해 자연유산법시행령(제18조) [별표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천연기념물	2. 식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다)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국가, 민족, 지역, 특정종, 군락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분포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온천, 사구, 습지, 호수, 늪, 동굴, 고원, 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나) 최고(最高), 최대, 최장, 최소(最小)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4)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노거수(老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2)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3)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 및 그 자생지·군락지 등
--	--

노거수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국가유산청(종전의 문화재청 2024.5.17.부터 명칭 변경)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잠재자원’ 추천을 받아⁴⁷⁾ 국가유산청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중점 심의되는 사항은 자연유산법시행령 제18조 [별표 1]의 4가지 요건 해당 여부다.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된 해에 모두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까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던 노거수도 여건에 따라 당연히 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이나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변경 지정될 수 있다. 최근의 예로서 예천군 감천면 수한리의 소나무는 종전 예천군 보호수에서 2020년 10월 경상북도 지정기념물(이는 종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것이며 현재의 자연유산법에 의하면 시·도자연유산이 된다)로 변경 지정된 바 있다.

3) 예천군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자연유산에 대한 관리

예천군이 발행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예천군의 문화재 지정현황은 <표 1>과 같다.⁴⁸⁾

47) 예천군청에서 산림보호 업무 전반, 보호수 및 노거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산림녹지과이며, 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를 지정/관리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이다.

48) 자료출처 : 예천통계연보(2023.12.), pp.438~440.

<표 1> 예천군의 문화재 지정현황(총괄)

국가지정						
소계	국보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35	1	22	3	3	2	2

경상북도 지정						등록문화재
소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1
68	22	3	5	8	30	

<표 1>에 나타난 천연기념물의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예천군의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지정일자	비고
294	예천 천향리 석송령(소나무)	감천면 천향리 804	1982.11.9.	수령 700년, 2천평 토지소유
400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용궁면 금남리 696	1998.12.23.	수령 500년, 2821평 토지소유
496	예천 금당실 송림(소나무군)	용문면 상금곡리 542-1외	2006.3.28	수령 약 200년

<표 1>의 경상북도 지정 기념물(자연유산법의 ‘시·도자연유산’)5개 중 노거수는 3개로, <표 3>과 같다.

<표 3> 예천군의 지정기념물(노거수)

지정번호	명칭	주소	지정일자	비고
110	죽림리 향나무	용문면 죽림리	1995.6.30.	수령 300년
111	사부리 소나무	용문면 사부리	1995.6.30.	수령 200년
180	수한리 소나무	감천면 수한리	2020.10.27.	수령 600년

자연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내용은 해당 나무에 대한 병충해 방제, 영양제 투여, 주변 제초작업, 그리고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지치기, 외

과수술, 지지대 설치 등이다. 아울러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주변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 및 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경상북도 내 시군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⁴⁹⁾에 규정하고 있다.

노거수에 대한 보호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호수나 자연유산인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나 다 같이 해당 나무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병충해 방제, 영양제투여, 주변 제초작업, 가지치기와 외과수술, 지지대 설치 등의 작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보호와 관리는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천연기념물은 해당 자연유산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체제를 갖추고 보호 및 관리를 하며, 시군에서 주기적으로 용역 등을 통해 해당 수목의 건강한 생육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예천군은 2024년 기준 군내의 3개 천연기념물 관리에 연간 약 6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수목전문가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천연기념물은 보호수나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노거수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밀하며, 신속한 조치로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4) 회화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2024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481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다. 대상은 동물과 식물이 망라되는데, 식물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이 대부분이고 회화나무는 5건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의 자료를 기초로 5건 각각에 대해 살펴본다.

49) 이 조례에는 도지정문화유산과 도문화유산자료, 그리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방법과 절차, 문화유산 등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심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말소의 요청을 위한 사전심의,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도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해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조사 또는 심의한다.(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참조)

①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지정(등록)일 : 1982.11.09., 소재지 : 서구 신현동 131-7번지

[국가유산청의 해당 천연기념물에 대한 설명]⁵⁰⁾

인천 신현동의 회화나무는 나이가 약 500살 정도로 추정(지정일 기준)되며, 높이 22m, 가슴높이의 둘레 5.59m로 가지는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 꽃이 필 때 위쪽에서 먼저 피면 풍년이 오고, 아래쪽에서 먼저 피면 흉년이 든다고 예측했다 한다.

인천 신현동의 회화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살아온 나무로 문화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50) <https://www.heritage.go.kr> 국가유산포털 참조.

②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지정(등록)일 : 1982.11.09.,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국가유산청의 해당 천연기념물에 대한 설명]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는 나이가 약 500살 정도이며, 높이 32m, 가슴높이 둘레 5.94m로 가지가 위와 옆으로 골고루 퍼져있어 아름답다. 이 나무의 유래는 조선조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낸 이행(李荇 ; 1478~1534)이 중종 12년(1517) 이곳에 내려와 집을 지으며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전해진다.

콩과에 속하는 이 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집안에 회화나무를 심어야 그 집안에 큰 학자가 배출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인물이 태어나는 것으로 믿어 왔다. 그리고 이 나무를 문 앞에 심어두면 잡귀의 접근을 막아 그 집안이 내내 평안할 수 있다는 관습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 들고, 적게 피면 흉년이 든다는 전설도 있다. 당진 삼월리의 회화나무는 오랜 세월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자라온 나무로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③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지정(등록)일 : 1982.11.09.,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국가유산청의 해당 천연기념물에 대한 설명]

월성 육통리의 회화나무는 높이 19.1m, 둘레 6.2m로 줄기의 많은 부분이 상해서 나무의 모습이 좋지 못하다. 나무의 나이는 약 400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약 600년 전인 고려 공민왕(재위 1351~1374) 때 이 마을에 살던 젊은이가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면서 이 나무를 심어놓고 부모님께 자식처럼 키워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 후 젊은이는 장렬하게 전사하였고 부모는 아들의 뜻대로 이 나무를 자식같이 여기며 가꾸어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이 나무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한다고 한다.

월성 육통리의 회화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살아왔으며, 민속적·문화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④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지정(등록)일 : 1982.11.09.,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국가유산청의 해당 천연기념물에 대한 설명]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는 나이가 5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19.5m이고, 둘레는 5.78m로 가지는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다. 1482년 광주 안씨의 22대 조이며 성균관 훈도를 지낸 안여거(安汝居)가 영동리에 정착하면서 심은 것이라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라고 믿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일에는 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내 왔다.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자라왔으며, 문화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설명자료에는 없으나 해당 회화나무를 보면 줄기의 많은 부분이 상해서 절단했기 때문에 모습이 좋은 편이 되지 못한다.

⑤ 창덕궁 회화나무군



지정(등록)일 : 2006.04.06.,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율곡로(창덕궁 내)

[국가유산청의 해당 천연기념물에 대한 설명]

창덕궁 회화나무는 창덕궁 돈화문을 들어서자마자 관람로 양 옆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회화나무 8그루로, 나무높이는 15.0~16.0m, 가슴높이 줄기직경은 90~178cm에 이르는 노거수이다. 회화나무는 궁궐 입구에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심어 가꾸어 왔는데, 창덕궁 돈화문 주변은 궁궐의 삼조(三朝) 중 조정의 관료들이 집무하는 관청이 배치되는 외조(外朝)의 공간에 해당되는 곳으로 궁궐 입구 주변에는 예로부터 중국 궁궐 건축의 기준이 되는 「주례(周禮)」에 따라 회화나무를 심었다.

「주례(周禮)」에 따르면 외조(外朝)는 왕이 삼공(三公)과 고경대부(孤卿大夫) 및 여러 관료와 귀족들을 만나는 장소로서, 이 중 삼공(三公)의 자리에는 회화나무(槐)를 심어 삼공(三公) 좌석의 표지(標識)로 삼았다고 하며, 이 때문에 회화나무는 삼공 위계(位階)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⁵¹⁾

51) 면삼삼괴삼공위언(面三三槐三公位焉) <「주례(周禮)」, 추관(秋官), 조사(朝士)>

창덕궁 회화나무는 위와 같은 사유로 궁궐 앞에 심겨진 회화나무 중 남겨진 것으로 추정하며, 1820년대 중반에 제작된 「동궐도(東闕圖)」에도 노거수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수령은 300~400여년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회화나무 8그루는 조선시대 궁궐의 배식 기준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노거수로 판단된다.

이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회화나무 5건을 삼수정 회화나무와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첫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와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는 이를 식재한 사람과 식재시기가 밝혀져 있으나 나머지 3개 회화나무는 식재자와 식재시기가 불분명하다. 식재시기를 기준으로 2024년 현재의 수령을 보면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가 542년,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는 507년이다. 식재시기가 불분명한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는 약 500년, 경주 육통리 회화나무는 400년, 창덕궁 회화나무는 약 300~400년으로 추정된다. 모두 600년이 된 삼수정 회화나무보다 수령이 짧다.

둘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와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는 식재자가 사대부였다는 점과 특정지역에 정착하면서 덕행을 통한 자손의 번영을 기원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삼수궁이 회화나무를 심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다 같이 고문진보라는 책의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들의 식재는 삼수궁의 회화나무 식재보다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는 약 60여년,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는 약 100년 뒤가 되는데, 삼수궁의 예를 뒤따라 심은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셋째, 나무의 생물학적 크기나 수세, 균형미 등을 보면 창덕궁의 회화나무는 나무 크기가 아직 작고, 경주 육통리 회화나무와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는 줄기의 많은 부분이 상하고 절단함에 따라 아름다움이 많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와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는 크기도 하지만 수세가 좋고, 균형미도 갖추고 있어 삼수정 회화나무와 비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삼수정 회화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필요성

삼수정 회화나무는 노거수로서 현재 예천군의 보호관리를 받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수정과 함께 지난 600여년 동안 이 지역 집성촌에 거주한

삼수공의 후손뿐 아니라 벼슬 등으로 인해 멀리 타향에서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고 이끌어 간 수많은 종인(宗人)들에게도 정신문화적 영향을 심대하게 미친 상징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서도 그 상징적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천연기념물인 국가의 자연유산으로 승격시켜 보다 강화된 보호관리와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노거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유산법시행령 제18조 [별표 1]에서 규정한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그 밖의 가치 중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삼수정 회화나무가 역사적 가치 요건(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살펴보면, 삼수정 회화나무는 누가, 언제, 왜 심었는지가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령(樹齡)이 회화나무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노거수 및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른 5건의 회화나무와도 차별된다. 뿐만아니라 후손들에게 덕행을 권면하는 표상의 상징물이자 후손의 복록과 영예를 염원하는 방편으로 식재된 사례로 효시를 이루며, 조선시대 500여년간 이 지역에 거주한 후손뿐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후손들에게 정신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덕행의 중시는 평시에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 행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과 같은 국난의 시기에는 의병장이나 독립지사(志士)를 배출해 국난 극복에 뛰어들게 하는 기반이 되었으므로 역사적, 민속적 가치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삼수정 회화나무가 경관적 가치 요건(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삼수정 회화나무는 수령이 600년이나 되었음에도 노거수로는 드물게 가지가 사방으로 멀리 뻗어 있고 균형미를 갖추고 있으며, 여름이면 잎도 무성하여 전체적으로 아직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화나무는 낙동강이 굽이쳐 삼강주막으로 유명한 삼강리 쪽으로 흘러가는 수려한 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삼수정이란 문화재와 인근 지역에 소재한 삼강주막, 쌍절암⁵²⁾, 회룡포 등의 명소가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름 높은 둘레길로

52) 쌍절암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병들이 이곳 동래정씨 집성촌으로 침입해 오자 낙동강변 대동산

연계되고⁵³⁾ 있다. 경관적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이 요건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연유산 지정의 직접적인 효과는 해당 자연유산재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삼수정 회화나무가 아직 건강하긴 하나 노쇠로 인해 일부 가지가 찢어지고 있는 등 보호와 관리의 강화가 시급하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중앙부처인 국가유산청이 관리의 주체가 되나 실제 업무는 시군으로 위탁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보호수와 마찬가지로 예천군이 관리하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예산이 보다 많이 투입되고 주변 일정 지역이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와 보호가 보다 강화된다는 점에서 보호수와 차이가 있다.

나무의 보호와 관리라는 측면 외에 삼수정 회화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천연기념물인 자연유산이라는 상징성이 갖는 의미와 활용가치다. 이 경우 회화나무는 바로 옆의 삼수정과 함께 국가가 관리하는 유명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의 보존뿐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덕행을 권면하는 정신문화 공간의 상징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삼강주막-회룡포와 둘레길로서 서로 연결되어 이 구간에 소재하고 있는 쌍절암 등과 함께 관광자원이자 살아있는 역사 학습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대로 명품 녹색길의 명소로서 현대인들의 좋은 쉼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피신하였던 정영후(삼수공의 7대 손)의 부인 청주 한씨와 시누이 처녀가 쫓아 오는 왜병을 피해 손을 맞잡고 절벽아래 낙동강으로 투신하여 정절을 지킨 곳이다. 조정에서는 후에 이 사실을 보고받고 정려를 지으라고 조서를 내려 1619년(광해군 11년) 전 대사성 정경세가 비문을 짓고 전 경성판관 조우인의 글씨로 쌍절각을 세웠다. 쌍절각은 현재 우망동리 앞에 세워져 보존되고 있다.

53) 삼수정에서 삼강주막과 회룡포는 직선거리로 각각 3.5km, 하회마을은 17.8km다. 회룡포와 삼강주막을 잇는 둘레길은 2012년 7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우리 마을 녹색길 명품 베스트 10”에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으며, 이 둘레길과 삼수정은 쌍절암 등이 있는 낙동강변으로 이어지는 생태숲길로 연결된다. 행정안전부 [이번 휴가, 숲길을 걸어요 - 우리 마을 녹색길 ‘베스트 10’ 선정] 제하 보도자료(2012.7.24.) 참조.

예천 삼강~회룡포 강변길 9 (13.7km) * 경북 예천군 풍양면·용궁면		■ 삼강(낙동강·내성천·금천)과 회룡포 아우르는 원점 회귀형 순환코스 ■ 비룡산·원산성의 조망이 뛰어나며 800m에 달하는 유실수 길이 흥미
--	---	---

4. 맺는 말

삼수정 회화나무를 지금과 같이 단지 수령(樹齡)이 오래된 된 노거수라는 측면에서만 보아 보호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삼수공은 덕행의 표상(表象)이자 상징물로 후손들이 덕행을 통해 복록과 영예를 누리도록 염원하면서 이 나무를 심었으며, 그가 영원한 대로 지난 600여년간 이 나무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실천적 규범으로서 덕행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몇몇 사례만을 살펴보았지만 수많은 삼수공의 후손들이 평화시에는 효(孝)와 우애, 관용 등 아름다운 덕행을 행하는 것으로, 전쟁으로 나라가 위급하거나 난(亂)의 발생, 일제강점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목숨을 걸고 분연히 일어나 의롭게 행동한 것으로 대응했던 역사가 이를 웅변해 준다. 그런 점에서 삼수정 회화나무의 정신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평가하고, 그에 알맞은 보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덕행의 표상’으로써 삼수정 회화나무는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통한 자연유산의 가치보존뿐 아니라 활용가치란 측면에서 새겨볼 필요가 있다.

덕(德)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다음 세 가지다(네이버 국어사전).

- ① 도덕적·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 ②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 ③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

사전적 의미 ①에서 말하는 인격적 능력의 대상이 되는 도덕적·윤리적 이상은 삼수공이 생존하였던 조선 초기나, 그의 15대 후손인 영의정 정원용이 삼수정 중수기(重修記)를 남긴 400년 뒤의 조선말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 같이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요약되는 군주제하에서의 신분계급제와 남녀와 노소의 차별적 인식, 충(忠)과 효(孝)의 중시 등 주자학적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윤리적 이상은 자유와 민주, 평등, 인권존중 등을 가치체계의 기초로 하는 글로벌 규범에 기반하고 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대부분은 더 이상 도덕적·윤리적 이상이 되지 않게 변모한 것이

다. 그러나 비록 시대변천에 따라 도덕적·윤리적 이상의 실질적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하더라도 각각의 시대에 요구되는 그 도덕적·윤리적 이상을 선양하고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즉 덕행(德行)은 지도자적 인물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의 하나이다.

둘러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심한 갈등과 반목 속에 도처에서 불법행위뿐 아니라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일탈이 만연하고 있다. 시각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분단된 민족 간에 증오가 뭉쳐 사생결단식 대결로 나타나고, 이웃 동네처럼 서로가 밀접하게 되었음에도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적인 투쟁으로 시끄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더 나은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인재(지도자)는 당연히 시대가 요구하는 덕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시대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인재(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편, 사전적 의미의 ②와 ③은 인간관계에서의 자세 또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친절, 이웃 사랑의 실천 등이 여기서 말하는 덕행(德行)이다. 이 덕행은 시대변천이나 도덕적·윤리적 규범변화와 무관한 것이다.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일지라도 최소한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친절이라는 덕행은 갖추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때이다. 예나 이제나 이러한 덕행을 하는 사람에겐 복록이 깃들기 마련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삼수공이 회화나무를 심은 600년 이전에 비해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는 덕행이라는 게 별 의미 없는 것이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삼수정 회화나무가 표상하는 바, 그 상징적 의미는 그 나무의 무성한 푸른 잎만큼이나 오늘도 싱싱하게 살아 있고, 활용가치도 높은 것이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이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 법률에 의한 삼수정 회화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합리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삼수정과 삼수정 회화나무(2024.8.)

[연구자]

정재완(鄭在完)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별곡 출생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박사·관세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관세청 청장비서관,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한국관세학회 회장, FTA 전문가포럼 회장

(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화 010-2599-7683, 이메일 : dhks9811@gmail.com)